



2015년 국제디자인연맹 총회 광주 유치 확정

70개국 4000여명 참석

전 세계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수천 명이 참가하는 2015년 국제디자인연맹(IDA) 총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국제디자인연맹(IDA)이 지난 31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015년 IDA 총회 개최지로 광주를 선정해 공식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IDA는 국제디자인업계의 대표적 단체인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 국제그래픽디자인협회(ICOGRADA), 세계실내건축가연맹(IFFI)이 공동 발전을 위해 2007년 결성한 연합단체로, 2년마다 총회를 열고 있다. 2011년에는 대만에서 열렸고, 올해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다.

광주시와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공동

주관으로 2015년 10월 열리는 IDA 총회에는 70여 개국에서 4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 유치 결정은 IDA 상임위원 9명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결합 도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럽·아프리카 등 4개 나라가 결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2011년 12월 유치의향을 제출한 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디자인계와 상호 협력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여왔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국제적 디자인도시로서 확고한 발판을 구축하는 한편 광주의 고유자산과 디자인을 융합해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광주만을 위한 디자인 사업이 아닌 세계적 관점의 디자인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파릇파릇 피어는 봄 입춘(立春)을 하루 앞둔 3일 고흥군 점암면 천하리 농민들이 최근 포근해진 날씨와 빗속에서 파릇파릇 싹이 오를 마늘밭 사이를 거닐며 생육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고흥=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일조기준 완화·'맞벽 건축' 허용 확대·허가기간 1개월로 단축

광주 중소형 주택 건축 쉬워진다

시, 건축조례 개정...원룸 등 건축붐 일 듯

광주에서 주택이나 원룸, 병원, 문화·집회시설 등 중·소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예정이라면 오는 3월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듯하다.

광주시가 빠르면 오는 3월부터 높이 9m 이하(평균 3층 높이)의 건축물에 대해 일조기준을 완화하고, '맞벽 건축' 대상 확대와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을 한달 이내로 단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조기준 완화에 따른 주민 간 갈등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제도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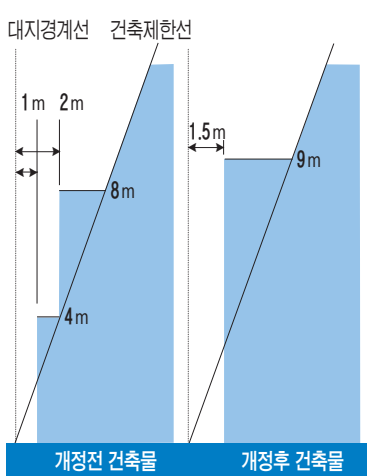
광주시는 3일 "지방건축위원회 심

의사항 기준 개선, 심의절차 규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심 의 개폐시기는 심의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기존에는 딱히 정해진 심의절차 기준이 없어 수개월씩 기다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일조기준 완화로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정북방향의 대지경계

■일조 기준 완화 전·후 건축물 비교



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도 줄어든다. 현재는 건축물 높이 4m까지는 1m 이상, 8m까지는 2m 이상, 그 이상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離隔)거리를 두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으로 통일된다.

이 경우 최대 3층 규모의 건축물까지 완화된 일조기준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원룸 등 건축물에 따라서는 기존보다 방(집) 한 개가 더 늘어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일조권 때문에 중·소규모의 건축물이 비정상적인 계단형으로 건축이 되고, 준공 후 이곳에 불법으로 새시 등을 설치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조기준 완화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현재 일조권 기준에서도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건물신축시 일조문제를 놓고 주민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두 건축물을 대지경계선에서 50cm 이내로 붙여지을 수 있는 '맞벽건축'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인접대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뿐이었지만, 앞으로는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의 합의만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보존·진흥구역도 '맞벽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광주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2012년말 기준으로 광주의 단독주택은 20만5000여 가구에 이른

北 핵실험 임박?

김정은 "자주권 중요 결론"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관련기사 5면〉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유력수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일 오후 중국을 방문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말도록 중국이 마지막까지 노력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핵실험이 이뤄질 것으로 지적되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서쪽 경도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경도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 부처별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태세를 잘 갖추라"고 말했다고 박정화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캄보디아에 '광주 5월 진료소'

광주일보 후원...상반기 개소, 미얀마 등 확대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 '광주 5월 진료소'(Gwangju May Clinic·가침)가 설립된다.

광주지역 다문화가정 지원단체인 (사)희망나무(이사장 류한호)는 올해 상반기에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에 건물을 임대해 '광주 5월 진료소' 1호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태국 메솔 또는 미얀마 내에 2호 진료소 개소를 계획중이며, 향후 광주지역 이주여성들의 비중이 큰 필리핀과 라오스 등에 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5월 진료소'는 주로 지역 의료진의 의료봉사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며, 현지 의사와 간호사 각 1명씩을 채용해 상주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광주일보가 후원하는 이번 사업은 그동안 이주여성 진정방문과 진정마을 의료봉사활동을 펼쳐온 사단법인 희망나무가 주관하며, 광주시와 시의회·시의사회·민간단체 등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 추진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김보현·서정성 광주시의원 등의 발의로 제정된 '광주시 5·18 정신 국제화 실행활동 지원 조례안'에 따라 '5월 진료소' 개소에 적극 지원·협력하기로 했고, 시의사회는 해외 의료 봉사활동에 뜻이 있는 사람들을 '당번제'로 해서 진료 활동을 늘려갈 계획이다.

'5월 진료소'란 명칭은 1980년 5·18 당시 나눔과 연대, 대동정신을 보여준 광주시민의 5월 정신을 국제화하자는 취지에서 정해졌다. 이 진료소가 동남아 각국에 들어서면 광주정신 확산과 함께 인권도시 광주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문화시대 새로운 국제협력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정성 의원은 "5월 진료소는 치료의 공간이자 이주여성들의 소식을 진정에 전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민간단체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사업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C-Class
24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광신대학교

2013년도 제21기
보육교사 교육원 학생모집
원서접수마감
2월6일(수)

062)605-1112
062)605-1023